

제 1 6 회 아 산 의 학 상 시 상 식 개 최



제16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3월 21일 서울시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제16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 전장수 교수와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강윤구 교수에게 각각 3억 원,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정충원 교수와 박세훈 교수에게는 각각 5천만 원 등 4명에게 총 7억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전장수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교수는 퇴행성 관절염의 분자생물학적 발병 원인을 규명하는 세계적인 연구로 퇴행성 관절염 기초 연구 분야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상의학부문 수상자인 강윤구 서울아산병원 중양내과 교수는 다양한 국내 및 해외 임상연구를 통해 위암과 위장관기질종양(GIST) 항암제 치료 분야의 표준을 정립하는 등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만 40세 이하의 의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젊은의학자부문의

정충원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집단유전학자로서 다양한 민족들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 의학 발전에 필요한 기초 유전 정보를 제시하였고, 박세훈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유전체와 빅데이터 분석 연구로 신장질환과 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입증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산재단은 국내 의과학계 발전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아산의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아산의학상 시상 및 수상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질병을 극복하려는 인류 본연의 소망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혀줄 산업적 측면에서도 의학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말하고 “수상자 네분의 훌륭한 업적들은 우리나라 의과학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며, 수상자들께서 앞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하시는데 오늘의 아산의학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글 편집부